

보도시점

배포 즉시

배포 2024. 7. 17.(수) 15:00

제21회 TOPCIT 정기평가 성적우수자 시상식 개최

- IT/SW 기관 및 기업부터 대학, 軍, 해외까지 함께하는 글로벌 축제의 장 -
- 필리핀 대통령실 고등교육위원회와 현지 인재육성을 위한 TOPCIT MOU체결 -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이종호, 이하 과기정통부)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(원장 홍진배, 이하 IITP)는 오늘 7월 17일(수) 서울 코엑스에서 ‘제21회 TOPCIT 정기평가 시상식’을 개최했다.
 - * TOPCIT(소프트웨어 역량검정 : Test of Practical Competency in IT)은 SW전공 학생, 재직자 대상으로 SW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역량을 평가하는 제도
 - 이날 시상식에서는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, 홍진배 IITP 원장, 김덕재 IT여성기업인협회장, 이진환 한국생산성본부 전무, 서성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부회장, 유은종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 등 기관·기업·軍 관계자 및 수상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40개의 상이 수여되었다.
 - 또한, 필리핀 대통령실 고등교육위원회(이하 CHED) 체리 멜라니 안체타 디에고(CHERRIE MELANIE ANCHETA-DIEGO) 국장 등 TOPCIT을 시행하고 있는 CHED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.
 - * CHED(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: 필리핀 고등교육위원회) : 필리핀 대학·단과대학·기술기관을 관할하는 대통령 직속기구
 - 더불어, IITP와 CHED 간의 MOU 체결식도 함께 진행되었다. TOPCIT 기반의 필리핀 SW역량체계를 구축·운영하고, 양 기관 간 기술·인력 교류 등 상호 발전을 위한 지속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.
- 제21회 정기평가 대상(과기정통부 장관상)은 738점을 얻은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문지환 학생이, 아주대학교 양성호 학생, 숙명여자대학교 강희수 학생과 충북대학교 이우창 학생이 각각 금·은·동상을 수상했다.

- 특히, 대상을 수상한 문지환 학생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 6회 응시하여 270점에서 738점으로 성적이 큰 폭으로 상승해 마침내 대학생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.
- 이번 시상식에는 TOPCIT 대규모 정기평가를 시행한 필리핀 TOPCIT 최고득점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했다. 필리핀 코르디예라대학교 익제 켈 유리 가르시아(EXEQUIEL YURI GARCIA) 및 FEU공과대학 미카 소피아 탄(MICAH SOPHIA TAN) 등 2명은 필리핀 대통령실 고등교육위원 장상을 수상하였다.
- 과기정통부와 IITP는 필리핀 정부와 공동으로 국가별 연 2회 정기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, 성적우수자에 대해 한국과 시행국가가 협력하여 포상하고 있다.
- IITP 홍진배 원장은 “국제통용 가능한 SW검증제도 TOPCIT의 육성을 통해 SW 한류 확산과 국민 위상 및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오고 있다. 앞으로 한국과 아시아를 넘어 유럽 및 미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”이라고 밝혔다.

붙임 : 행사 관련사진 1부.

담당 부서	디지털인재양성단 SW인재팀	책임자	팀 장	정재훈 (042-612-8450)
		담당자	책 임	박장순 (042-612-8453)





(사진1) 시상식을 마치고 수상자들과 함께 단체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



(사진2) (왼쪽)필리핀 고등교육위원회와 (오른쪽)정보통신기획평가원 간 TOPCIT 협력을 위한 MOU 체결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